

■ 르포 / 돌풍 피해 현장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에 가보니...

“자고 있는데 와장창... 암흑에 빠지며 아수라장”

어제 새벽 3시쯤 강력한 바람에 주택 파손 이어져 27명 긴급대피... “유리파편에 더 큰 피해 입을 뻔”

“돌풍에 와장창 소리를 내며 환관 유리가 깨졌어요. 당시 아이들이 거실에서 잠자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생각하니 아찔하네요.”

2일 새벽 3시쯤부터 몰아친 돌풍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마을에선 주택 5동과 창고 1동, 컨테이너 창고 2동이 파손되고 갈굴 비닐하우스 6동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주택은 지붕이 강풍에 통째로 날아가고, 전선이 끊겨 정전까지 발생했다. 주택 파손으로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9세대에 2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성산읍사무소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이날 오전 찾은 신평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했다. 돌풍으로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주택은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고, 인근의 다른 주택은 지붕 일부가 강풍에 뜰겨 나가면서 집 내부에는 빗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주택 인근의 한 갈굴 비닐하우스는 쇠 파이프가 엇가

락처럼 휘어 무너져 내렸다.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는지 집 주변과 농경지를 살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성산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뜬눈으로 밤을 샌 이재민들의 얼굴에는 돌풍 당시의 충격과 근심이 가득했다. 이들 대부분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로, 집이 파손된 이들은 임시거처를 알아보기 위해 집과 가까운 펜션이나 숙박시설에 연락하느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

이우연(41)씨는 “새벽에 돌풍으로 갑자기 환관 유리가 깨져 버렸다. 당시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자칫 바람에 유리 파편이 애들을 덮쳤더라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며 충격적이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전이 되면서 암흑이 돼 집에서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없어 주변 주민들과 함께 읍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강성분(49)씨는 “바람이 워낙



2일 새벽 불어닥친 돌풍에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리 한 주택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

이상국기자

거세 유리창이 깨지자 집에서 나와 이웃들과 함께 성산읍사무소로 대피했다가 오전에 잠시 집을 둘러봤는데 아이가 잠자던 방의 유리창도 깨져 유리 파편이 주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만약 대피하지 않았더라면 어

떻게 됐을지 끔찍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인식 신평리장은 “밤사이 몰아친 돌풍으로 마을주민이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등 마을이 속대밭이 됐다”며 “더

불어 태풍이 오기도 전에 산간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마을내 농경지가 상당수 침수됐다. 최근 파종한 월동무 등 싹을 막 틔우기 시작한 농작물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태윤기자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경쟁률 3.5대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0학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10명 모집에 385명이 접수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응시분야별로 보면 유치원 교사(일반) 12명 모집에 201명이 지원해 16.7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교사(일반)는 74명 모집에 122명이 지원했고, 장애인 전형 초등학교 교사는 6명 모집에 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외에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일반) 3.13대 1,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4.57대 1 등 경쟁률을 보였다.

김지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도내 미활용 폐교 4곳, 활용방안은?

어제 교육부 국정감사서 지적 “활용안돼 매년 관리비만 들어”

제주도내 폐교 4곳이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비어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 3월 폐교 결정이 내려진 추자초형간분교를 비롯해 신장중학교, 삼양초회천분교장, 신산중학교 등 도내 폐교 4곳이 현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폐교 24곳의 경우 도교육청이 마을회 등에 빌려줘 체험학습장, 교육장 등으로 쓰이

고 있지만 이들 4곳만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부 상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매년 폐교 관리비가 수억원 발생한다”며 “결국 폐교를 장기간 방치하면 할수록 국민혈세가 낭비된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추자초등학교가 자체 관리하고 있는 추자초형간분교장을 제외하고는 폐교 건물 안전진단 또는 철거 등을 거쳐 마을회 등에 대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삼양초회천분교에는 제주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제주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5.4명’

제주지역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536명이다. 도내 특수교사가 285명인 점으로 따져보

면 교사 1인 당 학생 5.4명을 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 평균 특수교사 1명이 학생 4.6명을 담당하는 것과 비교된다. 더욱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을 두도록 한 법정 기준도 초과한다. 전국적으로 이 기준을 지킨 시·도는 세종과 강원, 전남 3곳에 그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jeun@ihalla.com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개정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활동가 양성·운영, 사전심사제 운영 등 제주형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개선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농림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일부가 재정 이양됨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은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도, 오메기술·영감놀이 종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예고

수년째 공석이었던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3호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과 제2호 영감놀이 보유자 지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를 공고하고 도민 의견수렴 기간에 돌입했다.

성읍민속마을오메기술 보유자에는 강경순(53)전수교육조교가 인정 예고 됐다.

강 조교는 누룩 제조공정과 양조기술 등 제주 전통방식의 오메기술 제조 기법 등을 전수

받고, 우수한 전승 능력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앞서 김을정 선생(94)은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보유자에서 명예보유자로 자리를 옮겼다.

영감놀이 보유자에는 오춘옥(56) 전수교육조교가 지정 예고됐다. 오 조교는 고 이중춘 보유자로부터 영감놀이를 전수받은 인물로, 노래와 사실, 춤, 연기 등이 모두 뛰어나고 영감놀이의 치병의례 본질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감놀이 보유자 자리는 이중춘 보유자가 2011년 별세한 이후 8년째 공석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시농협

2019년 제주시세계지질공원 기념·월정 지질트레일 행사 개최를 축하합니다.

진심의 손에서
안심의 손까지

농업인에게 든든함을! 소비자에게 건강함을!

진심의 손으로 키워온 농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농협 하나로마트가 진심과 안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하나로마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4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하나로마트 노형점 750-6500